

# 유럽의 반이민 정치집단에 관한 연구

: 반이민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과 프랑스  
국민전선(National Front)의 정치적 부침(浮沈)\*



김 용 찬 (대구가톨릭대학교)

## 국문요약

논문은 반이민 정당인 영국독립당과 프랑스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과 침체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침의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와 정치적 행위자로서 양 정당의 전략변화 등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부상과 침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민문제라는 새로운 균열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함께 극우정당과의 차별화와 정치적 의제 확장 등의 전략변화가 정치적 부상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한편 양 정당의 정치적 성장을 어렵게 하고 침체 또는 몰락의 길을 걷게 하는 제도적 기회구조는 양국의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도와 결선투표제도는 정치연합의 가능성이 낮은 양 정당이 득표에 비해 적은 의석수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반이민 이슈를 흡수하는 주류정당의 대응은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침에 영향을 미쳐왔다.

\* 이 결과물은 2014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논문에 대해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조언해주신 내용들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전략변화라는 분석틀을 통해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침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국면과 단기적 양상의 정치적 성장과 쇠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 장기간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비교적 단기간 내 전개되는 반이민 정당의 부상과 침체를 고찰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류정당의 대응과 반이민 정당의 전략변화를 다룸으로써 행위자로서 정당의 역할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객관적 요인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한편 논문에서 활용된 '정치적 기회구조'와 전략변화 분석을 유럽의 반이민 정당 또는 극우정당에 대한 고찰로 확대시켜 정치적 부침에 관한 설명과 예측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부침의 유형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반이민, 정당, 영국독립당, 국민전선, 유럽

## I. 서론

2015년 난민사태와 파리테러 등은 유럽인의 이민에 대한 지속되어온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반이민 정서를 동원해 반이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럽 내 정치집단은 반이민 정당과 극우정당으로 다양한 수준의 선거에서 기존 주류정당을 위협하고 있다. 반이민 정치집단은 이민과 유럽연합문제를 결합해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의 주장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정책의 시행과 난민문제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을 비난하면서, 국내적 차원에서는 반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하고 유럽차원에서는 반유럽연합과 개별국가의 국경통제강화를 제기하고 있다.

반이민과 반유럽연합 운동을 통해 2010년대 반이민 정당과 극우정당의 정치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정치적 성장은 201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당시 영국독립당과 프랑스 국민전선은 유럽의회선거에서 좌우정당을 누르고 가장 높은 득표율과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이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이 경제, 사회, 문화적 소외계층에서 폭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영국독립당은 2017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국민전선의 경우도 대통령선거에서의 득표가 연이어 시행된 하원의원선거에서의 득표로 연결되지 않았다.

최근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상과 침체 사례들은 몇 가지 질문을 갖게 한다. 왜 반이민 정당은 정치적 부상과 침체를 겪는가?, 이민이슈가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성장 또는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정치적 부침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단기간의 정치적 몰락이나 패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존 주류정당의 대응은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행위자로서 반이민 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변화의 영향은 어떠한가? 등이다.

논문은 반이민 정당인 영국독립당과 프랑스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과 침체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침의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와 정치적 행위자로서 양 정당의 전략변화가 정치적 부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반이민 정당의 전략변화가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상과 침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논문은 극우정당과 반이민 정당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정치적 기회구조'와 전략변화를 양 정당의 정치적 부침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성장을 설명하고,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침체와 몰락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재부상과 이를 제한하는 기회구조와 전략 등의 요인을 분석해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 II.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 1. 극우정당과 반이민 정당에 관한 선행연구

극우정당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치적 재부상의 원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침체와 위기 같은 경제적 원인이 극우정당의 지지상승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주류정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항의투표(protest vote)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이고 자민족중심주의와 인종주의 등의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분권적 정치문화로 인해 극우정당의 부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배타적 복지국수주의(welfare chauvinist)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이민문제로 인해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자국민 중심의 복지국수주의가 강화되면서 극우정당이 재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고상두 외 2016, 72-73).

극우정당과 반이민 정당 성장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우선 기븐스(Givens 2005, 153)는 서유럽의 급진우파에 대한 투표 연구에서 급진우파정당과

같은 신생정당이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인 선거제도변화가 급진우파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6년 프랑스 하원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국민전선이 원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후 다시 소선거구 결선투표제(single member dual ballot)도입은 국민전선의 원내 진입을 막았다. 또한 프랑스 좌우 주류정당들은 국민전선과 같은 극단적 정치세력의 진출을 막기 위해 결선투표에서 ‘공화국 전선’(Front Republican)전략을 통한 협조를 지속함으로써 급진정치세력을 배제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독특한 정당협조체계가 급진우파의 원내진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고상두·장선화·한예슬(2016)의 연구에서는 영국독립당의 부상과 한계를 분석해 성장요인과 한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내 존재해왔던 유럽회의주의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한 반이민 정서와 세대와 계층별 정당지지 변화 등이 영국독립당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권능력 결여와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인 영국 선거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 영국독립당의 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제기한다.

고상두·기주옥(2013)은 극우정당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제도적 환경 이외에, 스페인 사례분석을 통해 정치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페인에서 극우정당의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경제적, 정치제도적 측면의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정치문화는 분권화와 지역주의 특성이 강해 민족주의와 중앙집권적 이념에 기초한 극우정당의 성공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즉 높은 이민자의 비율과 실업률,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극우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지역주의의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제기한다.

경제적 변수 이외에 극우정당과 반이민 정당 지지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우선 포드와 굿윈(Ford and Goodwin 2016; 2017; Goodwin 2015)은 영국독립당의 지지율 증가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변수 이외에 교육과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른바 ‘남겨진 자’(left behind)로 구분되는 노동자 계층, 남성, 노령, 저학력의 유권자들에서 기존 주류정당에 대한 지지철회와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가

1)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학력자와 미숙련노동자가 이민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숙련노동자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의 차이는 교육정도에 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저학력자의 경우 이민이 국가정체성과 문화,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고학력 숙련노동자의 경우 이민이 문화적 다양성과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다. 저학력 미숙련노동자의 경우 무슬림과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고학력 숙련노동자의 경우 교육의 영향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최진우 2012, 38-39).

나타났다고 제기한다. 특히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문화라는 새로운 균열의 집합(set)이 드러나고 심화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창룡·이재승(2016)은 국민전선의 부상을 전략변화, 즉 ‘탈악마화’(dédiabolisation)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탈악마화’의 핵심 내용은 ‘라이시테’(laïcité)이다. 이는 악마로 상징화된 극우정당 이미지를 정상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민전선의 반이민 담론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격논리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민문제와 관련해 우파정당과 국민전선의 이념적인 수렴이 나타나면서 선거에서 극우정당을 배제하던 중도우파와 좌파의 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극우정당과 반이민 정당의 반이민 정서 동원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앨런(Allen 2017, 282)의 서유럽과 구 사회주의(post communist) 유럽국가의 극우정당 지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에서는 반이민자 태도와 극우정당 지지가 강한 결합을 보여주며, 이는 극우정당의 이민문제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동유럽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이민자 태도를 변수로 한 극우정당 지지에 대한 예측력은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민문제를 정치이슈로 제기하지 않는 기존 주류정당의 ‘침묵의 모의’(conspiracy of silence)가 서유럽 정당체제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극우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민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극우정당의 성장과 선거패배를 포함한 정치적 실패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극우정당 지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드와 굿윈의 주장처럼 경제위기나 침체상황 속에서 타격을 받고 뒤쳐진 계층인 ‘남겨진 자’들의 극우정당 지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민이슈는 경제적 문제에 정체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결합시킨 극우정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담론이 되었고, 정치적 지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앨런의 연구에서처럼 특히 서유럽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는 반이민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오창룡·이재승의 연구에서는 극우정당의 전략변화가 극우정당의 정치적 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프랑스 국민전선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기븐스, 고상두·장선화·한예슬, 고상두·기주옥 등의 연구에서는 극우정당의 정치적 성장의 제한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치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극우정당의 정치적 부침을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부상 또는 선거패배의 일면에 대한 설명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국한되어있어, 극우정당의 정치적 성장과 침체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설명은 미미한 상황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기존 주류정당과 정치엘리트의 대응, 극우정당의 전략변화 등의 정치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관한 고찰은 제한적이다.

즉 정치제도, 경제, 사회문화 등의 구조적 변수들의 영향에 관한 분석에 주안점이 두어진 반면 행위자의 역할에 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경시된 측면이 있다. 셋째 극우정당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포퓰리즘 극우정당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포퓰리즘 극우정당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영국독립당과 같은 반이민 정당에 대한 개별 연구는 존재하지만 비교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논문에서는 반이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이민 정당<sup>2)</sup>인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반이민을 극우정당 대부분이 표방하고 있지만 영국독립당의 경우처럼 극우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정치집단을 비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연구에서는 반이민 정당의 부상, 침체, 미미한 정치적 입지 등의 상황을 분리해 분석하는 제한적 설명을 넘어서 정치적 부침의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반이민 정당의 부침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하나의 일면적 영향이 아닌 반이민 정당이 놓여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행위자들의 역할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

## 2. 연구의 분석틀

쿠프먼스와 스타섬(Koopmans and Statham 2000, 32-35)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네 개의 차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태로우(Tarrow)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관한 정의를 인용해 소개하고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이 집단행위를 착수하도록 장려책을 제공하는, 반드시 공식적인(formal) 또는 영속적인 것은 아닌, 정치환경의 일관된 차원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차원은 국가 균열구조이다. 새로운 정치행위자인 정치적 도전자(challenger)가 정체(polity)에 갈등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규정하는 구조이다. 도전자가 자신의 주장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들은 민족정체성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기존 정치사회 내에 이슈화된 균열들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둘째 차원은 공식적인 제도적 또는 법적 구조이다.

2) 극우정당의 범주에 국민전선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영국독립당의 경우 극우정당으로 구분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영국독립당의 경우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와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를 확고히 해왔던 것이 극우정당 그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전선의 경우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많은 변화를 추진했지만, 아버지 장 마리 르펜(Jean Marie Le Pen)시기의 나치에 대한 옹호,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정치담론이 극우정당 범주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극우정당, 급진정당, 급진우파정당, 포퓰리즘 극우정당 등의 정의와 범주를 논의하지 않는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 양 정당이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반이민 이슈에 주안점을 두어 반이민 정당으로 규정해 고찰하고 있다.

이 구조들은 정치행위자의 관계성과 역량을 규정하는 법적 방식(legal arrangements)과 제도적 행위자들의 집합과 관련된다. 이 기회 변수의 구체적인 차원들에는 정치제도의 중앙집권화 정도, 선거제도의 유형,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등이 포함된다. 셋째 차원은 정치적 기회의 보다 비공식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 지배적인(prevaling) 엘리트의 전략이다. 정치적 조직체 내에서 정치적 도전자의 처리와 갈등관리를 위해 기존 정치엘리트에 의해 활용되는 원칙과 절차, 대응에 관한 것이다.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수립을 통해 계급갈등을 진정시켰던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전통을 따라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종-관계 정치’(race-relations politics)방식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차원은 시간과 장소의 특정한 우연성과 관련이 있다. 즉 연합(alliance)구조는 정당과 정부의 상대적 강도와 정당체제의 구성 등을 포함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과 관련된다. 즉 정치엘리트의 분열은 전략적 정치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로 연결되고 도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킷셴트(Kitschelt)는 극우정당이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기회구조’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류 정당들이 중도 주위로 결집하거나 어느 정도 개방된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극우정당은 전통적인 국가파시즘과 단절된 전략변화를 채택해야만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극우’의 특징으로 소기업 경영자와 블루칼라 노동자에 집중된 선거기반, 자민족중심주의를 포함한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견해, 자유시장 등의 계획적인 조합으로 제기한다. 전형적인 예로 프랑스의 국민전선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극우’는 영국민족당(British National Party)<sup>3)</sup>과 같은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복지국수주의정당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Eatwell 2000, 357). 또한 뮈더(Mudde)도 극우정당의 부상원인을 정당의 전략이라는 공급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환경이나 유권자영향 등의 수요적 측면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을 설명하기 보다는 선거동원과 같은 당의 전략과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과 스페인의 외국인 비율은 각각 9.6%, 10.9%에 달하지만 극우정당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다. 벨기에의 경우 외국인 인구가 11.2%에 달하는데 오히려 극우정당의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민자 비율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극우정당의 동원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정은 2015, 78).

논문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 접근법과 킷셴트가 제시한 극우정당 부상의 요인인 전략변

3) 영국민족당은 1967년 설립된 극우세력인 National Front에서 분리한 그룹에 의해 1982년 창당되었다. 초대 당대표인 존 틴달(John Tyndall)이 제노포비아를 부추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영국민족당은 인종주의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김수행 2006, 54).

화 분석을 활용해 영국과 프랑스의 반이민 정당인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부상과 침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원 중 하나인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이 양국 반이민 정당의 부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민문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균열구조의 부각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반이민 정당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적 기회구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인 법제도적 구조와 기존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대응 분석을 활용해 양 정당의 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법제도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양국의 선거제도 고찰로 구체화해 선거제도가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부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선거제도와 함께 법제도적 구조로서 영연방제도가 영국독립당의 부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대응 분석은 이민이슈에 대한 양국 주류정당의 대응이 제공한 기회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셋째 정치연합구조 분석을 통해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킷셸트가 ‘새로운 극우정당’의 부상요인으로 전략변화를 강조한 것처럼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전략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양 정당의 부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이다. 양 정당 모두 반이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운동을 진행해왔으며, 2010년대 두드러진 정치적 부상과 침체를 경험했던 정당들이다. 이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은 반유럽연합과 결합된 반이민 이슈의 제기과 전략변화를 통해 정치적 부상을 이룩했던 반면, 선거제도와 주류정당의 이민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의해 정치적 몰락과 선거패배를 겪었다. 또한 정치연합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논문에서는 양 정당의 정치적 부침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실시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7년 4-5월 프랑스 대통령선거, 2017년 6월 영국 하원의원선거, 2017년 6월 프랑스 하원의원선거 등의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 Ⅲ.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부침, 기회구조 그리고 전략

#### 1. 이민문제의 부각과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부상

2011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영국거주 인원은 2백 7십만 명이고, 이들 중 백 십만 명은 2004년 5월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출신 이민자였다.



또한 2013년 3분기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723,000명의 신규 가입국 출신 노동자들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순이민(net migration)도 증가해 유입인구가 200,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2013년 조사에서 나타났다. 2014년 8월 영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순이민은 243,000명까지 증가했고, 이들 중 2/3가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이민자였다. 이러한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 출신 노동자의 이민과 순이민의 증가는 이민문제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2014년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이민 허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14년 5월 Ipsos MORI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가 영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교육과 학교 문제 등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이었다(Geddes 2014, 289-290).

영국은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영국은 식민지 모국으로서 이민과 이민자 수용에 포용적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침체 등의 여파로 단계적으로 구식민지 출신 이민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기존 인종평등과 인종차별금지 정책에 더해 영국의 가치를 이민자가 적극 수용하게 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이민과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영국사회에서 이민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회원국 국민의 영국이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민문제는 영국사회와 정치권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했다.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영국국민들은 이민통제권의 상실로 인식했으며, 유럽연합체제 아래에서는 신규 회원국 출신 이민자의 유입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었다. 유럽 출신 이민자의 유입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과 맞물려 이민문제는 영국사회의 주요문제로 부각되었다.

〈표 1〉 영국 인구 중 외국 출생자 수와 비율

	1991년	2001년	2011년	2015년
외국 출생자 수(단위: 만 명)	383	490	750	846
외국 출생자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6.7%	8.3%	11.9%	13.1%

출처: 한겨레신문(16/06/26)

영국독립당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Anti-Federalist League의 구성원들에 의해 창당되었다. 이것은 영국독립당이 유럽통합회의론에 기초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8년 브루제(Bruges)에서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대처(Thatcher) 전 총리의 연설에 영향을 받아 발족된

브루제그룹(Bruges Group)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영국독립당의 전 당대표이다. 한편 영국독립당은 자유주의 정당(libertarian party)으로서 자유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도 영국이 자유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자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행동의 자유, 재원의 자유, 국민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통합회의론에만 기초해서는 영국독립당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통합문제가 영국정치에 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하면서 영국독립당의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에 대한 인식도 압력단체 또는 단일이슈정당(single issue party)에 머물렀다. 따라서 영국독립당은 200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회의론 이외의 이슈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Tournier-Sol 2015, 142-144). 영국독립당이 새롭게 찾아낸 이슈가 바로 이민문제이다. 2004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중동유럽국가로부터의 이민은 영국독립당에게는 중요한 정치의제가 될 수 있었으며,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 회원국 이민문제를 유럽연합회의론과 연계시킬 수 있었다.

〈표 2〉 영국독립당의 선거 득표율과 의석수 변화

2009년 유럽의회선거	2010년 하원의원선거	2013년 지방의회선거	2014년 유럽의회선거	2015년 하원의원선거
16.51%/13석	3.1%/0석	23%	26.6%/배정된 73석 중 24석	12.6%/1석

출처: 고상두 외(2016, 68-69; 77); Goodwin(2015, 13-15)

〈표 2〉에서처럼 영국독립당은 ‘이순위 선거’(second order election)인 유럽의회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2010년대에 시행된 선거에서는 과거에 비해 득표율이 대폭 상승했다. 2014년 유럽의회선거에서는 득표율이 보수당과 노동당보다 앞섰으며 의석도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15년 하원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은 2010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이민통제에 대한 일관된 요구에도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가 이에 부합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영국 유권자들은 주류정당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전체 정치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민문제에 대한 대중적 우려는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 대한 반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이민이슈에 대한 불만과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은 급격한 사회, 경제, 가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며 저학력 백인들로 대표되는 ‘남겨진 자’들에 집중되어 나타났다.<sup>4)</sup> 이러한 ‘남겨진 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회의론

4) 정치에 대한 부정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당별 지지자 대상 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자가 정치엘리트의

의 단일이슈로 출발한 영국독립당은 강력한 이민반대를 결합해 제기함으로써 영국정치에서 신생정당 중 단기간에 가장 성공한 정당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하원의원선거 시 영국독립당의 지지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양당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민과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저학력, 고령, 백인들이 지지층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Ford and Goodwin 2017, 22-23).

영국독립당의 급격한 지지율 증가에 따라 지지층에 대한 분석들이 제시되었다. 분석들에서는 ‘남겨진 자’들이 영국독립당 지지층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와 굿윈(Ford and Goodwin 2016, 481-484)은 패라지와 영국독립당의 지지자 중에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총리의 노동당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였던 노동자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당 지지를 철회한 ‘구 노동당’(Old Labour) 지지자들이 ‘남겨진 자’를 구성하며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고 제기한다. 영국독립당의 지지층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국독립당 지지의 중추를 구성하는 사회계층은 블루칼라 육체노동자라고 지적한다. 또한 대학 이하 교육을 받은 계층과 50대 이상 세대 등이 ‘남겨진 자’의 일원이며, 이들이 영국독립당의 지지자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계층보다 교육과 연령이 영국독립당 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예측변수이며, 이들 변수들은 사회적 가치와 정체성애착(identity attachments)의 중요성을 반영했다고 언급한다. 즉 권위주의가치, 민족정체성애착,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한 적대감이 저학력, 고연령 유권자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투르니에 솔(Tournier-Sol 2015, 147)은 영국독립당의 지지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정중한 외국인혐오자’(polite xenophobes)이다. 둘째 ‘전략적 유럽연합회 의론자’(strategic Eurosceptics)로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적대감으로 영국독립당 지지를 표명하지만 하원의원선거에서는 주류정당에 투표하는 지지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유럽의회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의 ‘이순위 선거’에서 유럽연합회의론이나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을 영국독립당에 투표함으로써 표출하지만 총선거에서는 기존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다.

---

실행에 대해 최소의 부정적 성향을 보인 반면, 영국독립당 지지자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연령, 사회적 지위(social grades C2, D, E: skilled working class, working class, non working), 소득, 16세 또는 이전 학업 중단, 우파 타블로이드신문 구독, 거주 지역(잉글랜드 중부, 북부, 남부, 동부, 웨일즈, 스코틀랜드, 런던 등)등의 사회적 예측변수(social predictors)들을 설정해 영국독립당에 대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지지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국독립당에 대한 투표 의사는 55세 이상, 남성, 노동자 계층, 우파 타블로이드 구독자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에 대한 불만은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ennings 외 2016, 894-898).

## 2. 영국독립당의 전략변화: 반이민 운동 강화와 극우정당과의 차별화

2000년대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은 유럽통합 이외에 영국이 직면한 중요한 이슈로 이민문제를 제시하고, 반유럽연합 이슈와 달리 선거에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해 이민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sup>5)</sup> 영국독립당은 이민증가의 원인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을 지적하고, 중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에 대한 허용정책을 폐지할 것과 영국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독립당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며 단일문화주의(uniculturalism)와 시민민족주의의 증진을 강조하고,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sup>6)</sup> 그러나 영국독립당은 영국민족당과 명백하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자신들이 포용적이고 반인종차별적 성격을 가진 정당임을 강조했다.<sup>7)</sup> 특히 과거 극우세력이 영국독립당에 잠입한 사건 이후 인종주의 정치세력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반인종차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례로 영국독립당은 신념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극우정당인 영국민족당 당원의 가입은 금지했다(Tournier-Sol 2015, 146).

영국독립당은 영국민족당이나 유럽의 극우정당과 달리 민주적 절차와 방식, 반인종주의를 강조해왔다.<sup>8)</sup>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백인 중장년층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자유주의의 승리, 반파시스트 전쟁으로 인식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영국의 주요가치 중 하나라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영국독립당의 지지자 중 55세 이상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극우정당인 영국민족당의

- 
- 5) 여론조사에서도 영국독립당 지지의 첫 번째 동인은 이민문제로 나타났으며, 영국독립당은 이민문제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성공적으로 연결시켰고, 이민문제는 당의 유권자 공략의 주된 초점이 되었다(Tournier-Sol 2015, 151).
  - 6) 영국독립당의 이민정책은 이민을 통제하고 이민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해 영국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에 필요한 숙련노동자의 제한적 이민허용과 이민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족재결합에 대한 심사 강화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 강화, 유럽연합 회원국 학생에 대한 등록금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시리아 난민 중 무슬림을 배제하고 기독교인만 수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고상두 외 2016, 81-82).
  - 7) 영국에서 극우집단(far right group)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영국민족당, English Defense League, Aryan Revolution UK, Britain First, 영국민족당에서 분리된 British Unity 등이다. 이들 그룹들은 조 콕스(Jo Cox) 전 노동당 의원 살해사건 발생 시기부터 브렉시트 국민투표 투표일까지 Twitter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대폭 증가했다(Smith and Colliver 2016).
  - 8) 영국독립당은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 참여에서도 유럽 극우정당들과 거리를 유지해왔다. 영국독립당은 이탈리아 5성운동 등과 연대해 유럽자유직접민주(EFD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그룹을 주도하고 있다. 이 그룹은 유럽통합 반대그룹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2014년 선거결과로 31석에서 48석으로 의석수가 증가했다(전혜원 2014, 47).

경우 55세 이상이 39%로 주류정당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백인 중장년층은 영국의 가치와 배치되는 인종주의나 파시즘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독립당으로서는 인종주의와 파시즘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 의행 2016, 59-60; 박기성 2016, 181-182).

따라서 영국독립당은 이민통제와 지원축소 등을 언급하지만 전면적인 이민불허나 난민신청거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인력의 경우 이민허용의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영국정체성에 대한 강조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독립당의 반인종주의 표방은 지지기반이 인종주의와 극우 파시즘에 대한 반대가 강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지만, 당 창당부터 유럽연합회의론에 중심을 두는 자유주의정당을 천명했던 것과도 관련된다. 또한 다민족적 기반을 가진 연방으로 이루어진 영국에서 인종주의 정치세력은 정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영국독립당의 반인종주의 입장 고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선거 국면에서 인종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캠페인은 패라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독립당은 2014년 유럽의회선거의 핵심 공격대상을 유럽연합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 정책으로 제기했다. 선거포스터에서 도버해협을 하얀 절벽을 오르는 에스컬레이터와 영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2천 6백만 명 실업 노동자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민문제의 선거이슈화를 모색했다. 한편 이민이슈 제기를 통해 영국독립당의 지지를 상승이 체감되자 주요정당도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당시 보수당정부의 재무부장관은 the Sun on Sunday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4년 6월 현재 유럽연합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 정책의 시행 때문에 영국정부가 순이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도 2014년 6월 Prospect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독립당과 싸울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이동 정책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2년 동안의 대기기간, 인구등록과 노동시장규제 등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제한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류정당의 주장들은 유럽연합 이민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민제한정책 제안을 통해 영국독립당으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Geddes 2014, 291, 293).

2014년 유럽의회선거는 26%를 득표한 영국독립당의 부상으로 영국정치에 ‘지진’을 가져온 사건이 되었다. 2014년 선거에서 패라지의 포퓰리즘적 호소와 캠페인 스타일 등이 당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으며, 그의 이슈제시능력은 선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손에 맥주와 다른 한 손에 담배를 든 모습으로 TV뉴스에 등장하면서 다른 정치지도자들과 차별화된 모습과 함께 기성 정치에 반대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Cushion 외 2015, 321).

〈표 3〉 유럽의회선거 시 TV뉴스의 정치지도자 발언보도와 이미지노출 시간 비교

(단위: 초; 발언(soundbites)/노출(imagebites))

	2009				2014			
	BBC	ITV	Ch4	Ch5	BBC	ITV	Ch4	Ch5
보수당 카메론	29/11	0/10	0	0	112/59	86/61	283/41	130/31
노동당 브라운(2009) 밀리반드(2014)	50/35	0/0	17/41	3/34	46/28	64/51	348/55	71/42
자유민주당 클레그	28/93	15/12	11	0/0	109/76	107/52	150/26	83/51
영국독립당 패라지	0/0	0/12	0/0	0/0	94/68	104/77	249/107	16/30

출처: Cushion 외(2015, 317-318)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2014년 유럽의회선거 당시 언론에서의 패라지 발언보도와 이미지노출 시간이 2009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류정당의 정치지도자의 발언보도와 이미지노출시간에 비교해도 적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16.5%를 득표했음에도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영국사회와 언론의 관심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패라지의 포퓰리즘적 발언과 이미지 표출, 이민이슈 제기와 유럽연합회의론과의 연계, 이민문제에 대한 우려 등이 결합되어 영국독립당은 영국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2015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은 3.1% 득표율을 기록했던 2010년 총선거에 비해 급등한 12.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약 4백만 표를 획득했다.<sup>9)</sup> 그러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도(first past the post) 아래에서 영국독립당은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보수당을 탈당한 더글라스 카스웰(Douglas Carswell)이 유일한 영국독립당의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패라지는 선거 후 당대표를 사임했으며 영국독립당은 당대표 선출 문제로 내분에 휩싸였다. 2015년 하원의원선거는 2014년 유럽의회선거와 함께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2014년 패라지는 30석 의석확보를 목표로 전략지역구를 정해 선거운동을 준비했다. 주로 잉글랜드의 특정지역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노인, 백인, 노동자 계층, 저학력자 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영국독립당은 총선에서 이 지역들에서 실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규모 의원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2010년의 경우 20%만이 선거 공탁금을 돌려받았던 것에 비해 2015년의

9) 영국독립당은 정확하게 388만 표를 얻어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241만 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145만 표를 앞질렀다. 2013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2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노동당 29%, 보수당 25%의 득표율에 비해 조금 뒤처지는 수준이었다(고상두 외 2016, 68-69).

경우 영국독립당 후보 중 90%가 공탁금을 보전 받았으며, 120개 선거구에서 제1 또는 제2야당으로 부상했다. 2015년 총선거를 통해 드러난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층은 잉글랜드 지역의 '남겨진 자'와 일부 노동자 계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러한 경향은 2014년 유럽의회선거, 지방선거와 유사성을 나타내주었다(Goodwin 2015, 13-15).

### 3.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영국독립당의 반이민 운동의 확장, 정치적 결과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보수당 카메론(Cameron) 전 총리의 공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브렉시트 투표는 영국독립당의 보수당 지지층 잠식을 막고 2014년 유럽의회선거와 2015년 하원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던진 승부수였다. 영국독립당에 의한 보수 지지표의 분열로 보수당 의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당내 압력이 카메론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약속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연구들에서는 영국독립당의 득표로 인해 2010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최대 20석까지 보수당이 의석을 잃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따라서 카메론의 국민투표 약속은 명백히 '영국독립당 여우사냥'(shooting the UKIP fox)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복지와 이민이슈 등에 대해 보다 보수화된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주도해 영국독립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를 취했다(Tournier-Sol 2015, 147-148). 이러한 카메론의 전략은 2015년 5월 총선에서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노동당과 접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선거결과는 보수당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650석 중 과반이 넘는 331석을 획득해 연정 없이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국민일보 15/05/09).

국민투표 결과는 72.2%의 투표율에 탈퇴 51.9% 대 잔류 48.1%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탈퇴 대 잔류 지지비율이 잉글랜드지역은 53.4% 대 46.6%, 스코틀랜드지역은 38.0% 대 62.0%, 웨일즈지역은 52.5% 대 47.5%, 북아일랜드지역은 44.2% 대 55.8%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Jackson 외 2016, 9). 투표 전 여론조사결과들은 탈퇴 의견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민문제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면 6월 13일 공개된 영국의 가디언(Guardian)과 텔레그래프(Telegraph) 등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각각 탈퇴 53% 대 잔류 47%, 탈퇴 49% 대 잔류 48%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탈퇴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16/06/14).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전인 6월 19일과 20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이민이 유럽연합 외부에서 더 잘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없는 이민을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브렉시트를 이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했다(Independent 16/06/26).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는 계급, 교육, 민족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탈퇴

지지가 높게 나온 지역들은 최소의 민족적 다양성이 존재하거나, 노동자 계층 유권자가 집중되고 저학력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드러났다. 이민에 대한 경험 또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면 과거 10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이민의 결과로 중요한 인구 변화를 경험한 지역의 경우 탈퇴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ord and Goodwin 2017, 25-26).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과를 야기한 장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제시되었다. 단기적 원인은 2003년 노동당 블레어총리가 2004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중동유럽 8개국 국민의 영국이민을 허용한 결정이었다.<sup>10)</sup>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7년까지 이민제한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영국정부는 상이한 대응을 했다. 장기적 원인은 1960년대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민문제를 공공토론에서 배제시키는 정치적 합의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암묵적 합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한 외국노동력의 지속적 유입을 초래했다. 계속되어온 이민증가는 이민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국민투표 캠페인 동안 영국독립당이 제기한 이민문제는 대중적 반감을 기초로 주요 정치이슈로 부각되었다. 카메론으로부터 ‘괴짜’(cranks)와 ‘드러나지 않은 인종차별주의자들’(closet racists)로 조롱받았지만 영국독립당은 ‘규제받지 않는 이민’(uncontrolled immigration)에 대한 반대를 선거에서 충분히 상품화했다. 국민 투표 4주 전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민자 수는 탈퇴진영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민관련 통계에서 전체 이민자수와 유럽연합 회원국 이민자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한 해 영국에 입국한 이민자 수는 63만 명으로 이들 중 27만 명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주해왔으며, 순이민 인원은 33만 명으로 나타났다(Geddes 2016, 18).

영국독립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당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규모 집회와 버스투어를 진행했다. 노동당대표인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의 애매모호한 잔류운동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던 것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1)</sup> 영국독립당은 이민문제에 집중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난민문제 부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된 ‘한계점’(Breaking Point)포스터<sup>12)</sup> 광고를 잔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0) 노동당은 2010년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줄곧 자유로운 이동과 이민정책에 대해 사과해왔다. 이민에 관한 우려의 폭발은 순이민 목표를 명시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탄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Geddes 2014, 290).

11) 노동당에서는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코빈 대표의 책임을 묻고자 당 대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며, 26일에는 새도 캐비닛 각료 10여명이 코빈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임했다(국민일보 16/06/28).

12) 영국독립당의 선동적인 ‘한계점’포스터는 탈퇴 캠페인 차량들에 장식되어져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슬로베니아 국경의 시리아난민 대기행렬을 사진으로 나타낸 포스터는 난민과 이민이슈의 결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포스터에서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떠나야하며 우리의 국경에 대한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이 “영국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한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당했던 날에 시작했다. 이러한 행태로 인한 비난여론을 감수하고 이민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영국독립당은 노력했다(Ford and Goodwin 2017, 24). 해당 포스터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 이민자들은 유색인종이고 젊은 남성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영국국민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고, 이민자들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존재라는 것 등을 암시하는 영국독립당의 인종주의적 담론 제기가 포스터 광고를 통해 시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국독립당은 영국이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권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배제하고 마치 영국에 이민자가 통제 없이 진입할 수 있고, 이들 이민자는 무슬림이라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Morrison 2016, 66).

영국독립당의 탈퇴운동에서 가장 자극적인 발언과 캠페인은 패라지에 의해 진행되었다.<sup>13)</sup> 패라지는 성적으로 약탈적인 이민자의 유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지속했으며, 영국독립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국가가 되돌려지기를 원한다”(We want our country back)는 슬로건을 활용했다. 보수당의 마이클 고브(Michael Gove)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인 상황을 순진한 영국이 유럽연합의 차 트렁크에 인질로 잡힌 납치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같은 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유럽연합의 지정학적 야심이라는 나치즘의 진부한 비유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에 비해 영국독립당과 패라지 전 당대표는 보다 감정적이고 이민문제에 집중한 민족주의적 표현들을 활용했다(Martin 2016, 21).

영국독립당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탈퇴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당내와 탈퇴진영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드러났다. 영국독립당 내부에서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존재했다. 반이민을 명확히 내세우는 패라지와 이민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카스웰 간에 이민이슈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탈퇴진영과 패라지와와의 관계도 단절적이었다. 탈퇴운동을 주도했던 보수당의 존슨과 고브, 영국독립당의 카스웰의 연합세력은 탈퇴진영에서 패라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았다.<sup>14)</sup> 국민투표 이후 탈퇴결과에도

---

통제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oore 2016, 28).

13)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패라지는 트위터에 “우리가 해냈다.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라는 글을 올렸다(경향신문 16/06/24). 한편 패라지는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제공하는 3억 5000만 파운드의 분담금이 건강보험서비스에 투자될 것이라는 탈퇴진영의 공약에 대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탈퇴캠프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향신문 16/06/28).

14) 존슨과 고브는 반이민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영국을 선호했다. 패라지가 내건 포스터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심지어 탈퇴캠프에서는 패라지가 브렉시트 캠페인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었다(Economist 16/06/25). 브렉시트 추진세력은 이민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입장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존슨의 경우 단일시장 접근과 함께 새로운 이민에 대한 호주식 포인트제도(points system)

불구하고 당 내분 때문에 패라지의 당 장악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영국독립당의 존립 기반은 불명확해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Ewen 2016, 86).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탈퇴진영의 주역들은 일단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존슨과 고브는 총리 도전이 점쳐졌으나 당내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고 패라지는 당대표에서 사퇴했다. 이후 존슨과 고브는 보수당정부의 장관으로 복귀했지만 패라지는 당대표로 복귀하지 않았다. 패라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후보의 선거를 돕는 등 외부활동에 주력했다. 패라지 사퇴 이후 영국독립당은 내홍을 겪었다.<sup>15)</sup>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갑자기 사퇴했고, 이후 진행된 신임 당대표 경선과정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의 설립목적인 유럽연합 탈퇴를 달성한 상황에서 새로운 당 정체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당내 분열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Ford and Goodwin 2017, 26-27). 2016년 11월에야 폴 누탈(Paul Nuttall)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2016년 9월 패라지 사퇴 이후 새롭게 대표직에 선출된 다이앤 제임스(Diane James) 유럽의회의원은 18일 만에 갑자기 사임했고, 이후 패라지가 임시대표를 맡았다가 신임 당대표로 누탈이 선출된 것이다. 누탈은 영국독립당을 노동당을 대신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당내 불화의 해결과 영국독립당의 통합을 역설했다<sup>16)</sup>(연합뉴스 16/11/29; 뉴시스 16/11/29).

중요한 점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탈퇴로 결론나면서 영국독립당의 경우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영국독립당은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목표로 한 정당이다. 특히 창당 당시에는 반유럽연합만을 내세운 단일이슈정당이였다. 정당의 목표가 브렉시트를 통해 달성된 상황에서 이민문제만을 강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반이민 이슈를 중심으로 영국독립당이 활동한다면 영국민족당과 같은 인종주의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것은 영국사회에서는 정치적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

의 도입을 언급한 반면, 영국독립당의 패라지의 경우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규제받지 않는 이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족주의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Geddes 2016, 18).

15) 영국독립당은 '원 맨 밴드'(one-man band)정당으로 불릴 만큼 패라지의 영향력이 큰 정당이다. 영국독립당을 탈당한 인사들은 자주 패라지의 권위주의적 당 지배를 비난해왔다. 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 포기에 대한 패라지의 거부는 당의 발전을 위한 장애물로 인식되어왔다. 반면 패라지가 노정시켜온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국독립당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 자신도 우선순위를 영국독립당을 주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진 스캔들과 당내 내분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Tournier-Sol 2015, 153).

16) 당대표 경선 전 2016년 10월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영국독립당 소속 유럽의회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스티븐 울프(Steven Woolfe)의원과 같은 당 마이크 후켄(Mike Hookem)의원 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울프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이후 울프 의원은 당대표 경선 하차와 탈당을 선언했다(뉴시스 16/10/18).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국독립당의 이민이슈 선점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모두 이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기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영국독립당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독립당은 브렉시트와 이민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층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당의 생존을 모색했으나, 이 또한 영국의 강력한 양당과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체제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선택이 되었다.

#### 4. 하원의원선거와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몰락

영국독립당은 2017년 하원의원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브렉시트의 ‘중추’(backbone)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누탈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독립당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영국독립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진정한 브렉시트 지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여성할례를 막기 위한 의료검사를 도입하는 등 ‘통합’(integration)프로그램을 제시했다(Guardian 17/04/28). 영국독립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균형 잡힌 이민’(balanced migration)과 ‘통합’이 제시되었다. 영국독립당은 집권 시 ‘이민통제위원회’(Migration Control Commission)를 설치해 5년 안에 순이민을 0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미숙련노동자의 이민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점수기반 이민제도’(point-based immigration system)를 통해 이민신청자의 사회적 태도를 검증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UKIP 2017 MANIFESTO, 3; 5; 32-34).

2017년 4월 18일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총리가 6월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보수당의 압승이 점쳐졌다. 보수당의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안정과 브렉시트 협상의 국내외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메이총리의 의도로 조기 총선은 시작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요양비용 정책과 런던과 맨체스터 등지에서 테러 등으로 인해 선거 막판이 되면서 보수당과 노동당 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5월 6일 47% 대 30%의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율이 테러 발생 이후인 6월 3일에는 40% 대 39%로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조선일보 17/06/06).

총선 결과 보수당은 330석에서 318석으로 의석수가 줄었으며, 노동당은 232석에서 261석으로 의석수가 증가했다. 반면 영국독립당은 득표율 1.8%에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2015년 총선 당시 12.6%의 득표율에 비하면 몰락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국독립당의 반유럽연합 의제가 브렉시트로 현실화되자 당은 역설적으로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뉴스1 17/06/09). 누탈 당대표는 선거결과가 나온 직후 사퇴를 표명했다. 누탈은 사퇴연설에서 영국독립당에게는 ‘브렉시트의 파수꾼’(guard dogs of Brexit)로서

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독립당 내에서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제기되었던 ‘반이슬람 메시지’를 중단해야 당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패라지가 다시 대표로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독립당 당내 인사들도 패라지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Guardian 17/06/09). 패라지 자신도 당대표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승리로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하면서도 당 복귀를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Independent 17/06/10).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의 참패는 2월 하원의원 보궐선거와 5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2월 진행된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탈퇴지지가 69%였던 지역에서 영국독립당 후보가 패배했다. 당시 패배의 여파로 당 내에서는 패라지와 유일한 하원의원인 카스웰 사이에 비난전이 시작되었다. 패라지는 카스웰이 당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카스웰도 패라지의 행태를 조롱하는 등 내용이 심화되었다.<sup>17)</sup> 한편 5월 치러진 지방의회선거에서도 영국독립당은 기존 보유 의석의 대부분을 잃는 참패의 결과를 얻었다(연합뉴스 17/03/01; 연합뉴스 17/05/05; 조선일보 17/05/10).

이번 영국 조기총선에서는 청년층의 투표 증가와 노동당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 영국언론에서 ‘청년지진’(youthquake)으로 표현된 청년층의 투표참여와 노동당 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Ipsos Mori는 18-24세 유권자의 54%, 24-34세 유권자의 55%가 투표한 것으로 분석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청년층의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5년 총선에 비하면 대폭 높아진 투표율이다. 특히 18-24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16%정도 증가했다. 또한 이들 중 60%가 노동당에 투표했던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노동당 지지가 노동당의 선전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sup>18)</sup> 한편 영국독립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지지층이었던 노동자 계층과 고령자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남성 미숙련노동자층에서 5%의 지지를 확보했을 뿐이다(Guardian 17/06/20).

17) 2016년에도 카스웰은 브렉시트는 패라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한 국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패라지도 카스웰이 영국독립당이 급진 반이민 정당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독립당의 유일한 하원의원이었던 카스웰은 결국 2017년 3월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았다. 그는 영국독립당 지지자들에게 당의 목표인 브렉시트가 성공했기 때문에 당을 떠날 것을 제안했다(Guardian 16/12/14; Guardian 17/03/01; Independent 17/05/05).

18)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26세 이하 청년층은 21%만이 탈퇴를 지지했다. 65세 이상 영국국민의 69%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Independent 16/06/26).

## IV. 프랑스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침, 기회구조 그리고 전략

### 1. 이민문제의 부각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침

2014년 1월 발표된 프랑스 인구통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수는 5백 9십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1세대와 2세대가 25세에서 55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6%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슬람국가 출신을 무슬림으로 간주한다면 약 5백만 명의 무슬림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독일과 함께 프랑스는 가장 많은 무슬림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비호신청자(asylum seeker)는 2013년 435,000명, 2014년 635,000명, 2015년 백 3십만 명까지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 프랑스로의 비호신청은 24% 증가한 80,075명이었고, 이들 중 34%에 해당하는 19,506명이 받아들여졌다. 프랑스의 비호신청자 수용은 203,000명의 비호신청자를 승인했던 독일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다(Mayer 2016, 46-48).

〈표 4〉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

	1962년	1975년	1990년	2013년
이민자 비율	6.2	7.4	7.1	8.8
유럽지역 출신 이민자 비율	78.7	67.1	50.4	46
아프리카지역 출신 이민자 비율	14.9	28	35.9	30
아시아, 미주, 여타 지역 출신 이민자 비율	6.4	4.9	13.7	24

출처: Mayer(2016, 45)에서 재인용.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의미하며 출신 지역별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2013년 1월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답했으며, 46%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이민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다. 프랑스의 사회적 가치와 이슬람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체의 74%에 달했는데 국민전선 지지자 94%,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지지자 81%, 사회당 지지자 59%, 극좌파 지지자 67%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슬람과 프랑스의 가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내재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민 2013, 200-201). 반면 2015년 1월 테러 직후 조사에 따르면 이슬람과 프랑스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로 2014년 63%보다 감소한 상반된 조사결과도 제시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테러가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제기되었다(오창룡 외 2016, 310).

한편 2016년 조사에서 프랑스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의 24%에서 29%로 다소 증가했지만 독일인 29%, 영국인 28%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남유럽이나 북유럽국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유럽인 중 이민 1세대보다 이민 2세대에 대해 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민이다. 특히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 2세대에 대해서는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했던 1세대에 비해 말썽꾼(troublemaker)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yer 2016, 51). 이러한 이민 2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5년 발생한 테러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월 발생한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에 대한 테러와 같은 해 11월 바타클랑(Bataclan)극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 6곳에서의 동시 다발 테러는 1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테러였으며 프랑스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테러리스트의 상당수가 프랑코-알제리인이었다. 이들은 알제리계 2세대들이었으며 2012년 유대인 살해와 2014년 벨기에 브뤼셀 유대인 박물관 테러도 프랑코-알제리인에 의해 자행되었다. 프랑스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했으며, 프랑스사회에서는 비호신청자에 대한 의심이 팽배했다. 언론에서는 테러리스트 중 일부가 시리아와 이라크난민의 이주경로를 따라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파리 테러 전 10월에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이민자유입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경통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테러와 난민사태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쉥겐조약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다. 마린 르펜은 “국경이 없다는 것은 곧 범죄를 촉발하는 광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유로 사용과 쉥겐조약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언급했다(박단 2016, 2; 5; 18-19; Lendaro 2016, 150).

조사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에서 이민문제와 무슬림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우파 집권당의 이민통제강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 착용 문제, 파리의 무슬림 폭동, 무슬림의 연이은 테러 등으로 인해 국민전선이 반이민과 반이슬람 정서를 활용해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프랑스국민이 무슬림 이민 2세대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은 선거에서 반이민 정서를 공략하기 위한 국민전선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다. 2002년 이후 침체를 겪었던 국민전선으로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 반이민과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된 것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전선은 1972년 결성되었다. 창당 이후 국민전선은 극우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장 마리 르펜이 장기간 당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전선을 이끌어왔다. 그는 국회의원신분으로 알제리 독립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으며, 알제리 독립이후에는 이민자를 공격대상으로 한 반이민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인종주의와 나치옹호 등 극우적 주장들을 지속했다.<sup>19)</sup> 또한 식민주의에 대한 지지와 유대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반유대주의의 입장 등도 표명했는데, 그의 주장은 프랑스의 ‘공화국 전통’(republic tradition)과는 괴리된 것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극우인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박단 2016, 21; 조홍식 2012, 412).

1980년대 국민전선은 반이민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했다. 경기불황이 실업증가로 이어지자 국민전선은 프랑스 노동자와 이민자간 일자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민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민전선의 정강에는 반이민자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프랑스국민을 위한 복지혜택, 주거프로그램, 고용프로그램 등을 보존하기 위해 ‘민족선호’(national preference)의 원칙이 포함되었다. 한편 냉전시기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와 함께 당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반이민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민전선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가 되었다. 선거에서 무슬림을 공격대상으로 한 반이민 운동을 진행했고, 이민이슈를 당의 핵심 캠페인 내용으로 활용했다. 1981년 하원의원선거 득표율이 0.2%에 머물렀지만 1986년 선거에서는 9.65%로 증가해 국민전선의 이민이슈의 정치적 동원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오정은 2014, 6-8; Mayer 2016, 53).

2002년부터 2011년 사이는 국민전선의 침체기로 구분된다. 장 마리 르펜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진출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sup>20)</sup> 결국 2011년 국민전선 전당대회 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시기 우파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은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국민전선의 반이민 담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sup>21)</sup> ‘국민전선화’로 통칭되는 대중운동연합의 반이민 이슈 흡수전략은 지지층 확장을

19) 장 마리 르펜은 “모든 인종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인종주의 발언과 “나치의 가스실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유대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나치를 옹호하는 언급을 지속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를 일본 극우인사들과 참배하기도 했다(윤석준 2015, 76-77).

20)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장 마리 르펜은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 “300만의 실업자, 300만 잉여 이민노동자”, “외국인 추방과 치안확보” 등의 반이민과 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정치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김승민 2013, 209). 2002년 대선 1차투표 당시 장 마리 르펜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3%가 이탈해 2007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4%가 사르코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한 반면, 장 마리 르펜에 대해서는 41%만이 자질을 인정하는데 그쳤다(오창룡 외 2016, 315).

21) 프랑스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도입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내무장관이던 2003년 새로운 이민법안을 제기하였다. 법안에는 입국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증명서 발급조건개편과 불법이민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문전산화 허용 등이 포함되었

위한 양 정당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대중운동연합의 집권과 국민전선의 침체로 연결되었다 (조홍식 2015, 105, 111).

〈표 5〉 국민전선의 선거 득표율과 의석수 변화

2012년 대통령선거 1차 투표	2012년 하원의원선거	2014년 지방의회선거	2014년 유럽의회선거
17.9%	13.6%/577석 중 2석	4.7%/12개 시 시장 당선	24.9%/배정된 74석 중 24석

출처: 고상두 외(2016, 70); 최진우(2012, 42-43); 황기식 외(2016, 146); 오정은(2014, 10, 13)

2010년대 들어 국민전선의 재부상은 선거결과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2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은 3위를 기록해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지만 17.9%의 예상 밖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결과는 국민전선에게는 2000년대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다. 2012년 하원의원선거에서는 13.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어 원내에 진입했다. 비례대표제도가 유일하게 도입된 1986년 총선 이후 최초의 하원의원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2014년 치러진 유럽의회선거에서 국민전선은 24.9%의 득표율로 프랑스 정당 중 제1당에 오르는 결과를 얻으면서 최대의 정치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국민전선의 지지층은 민족주의와 반이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난민수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마린 르펜에 투표했던 유권자 중 83%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성향을 보이는 반면, 급진좌파정당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 튀크 멜랑송(Jean-Luc Mélenchon)을 지지했던 유권자에게서는 10%만이 같은 성향을 보였다.<sup>22)</sup> 2014년 유럽의회선거 직후 실시된 프랑스 유권자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31%가 이민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전선 지지자는 64%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파정당인 대중운동연합 지지자의

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7년에는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및 개발연대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는 이민자 수의 제한과 특정지역 출신 이민자 통제 등을 시행했다. 2007년 시행된 ‘오르트페’(Hortefeux)법에 따라 가족재결합에 소득과 가족관계 확인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다(황기식 외 2016, 156-157).

22) 2012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을 지지한 유권자의 구성은 노동자 29%, 상인 26%, 월급생활자 22%, 농민 20% 등으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르펜의 극우 이미지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유권자 계층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시사IN 12/05/08).



42%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1%가 이민이슈를 투표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30%, 실업 27%, 유로존위기 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민문제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민감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난민 정서는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극우정당 지지자 중 12%만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국민전선 지지자 중 단 4%만이 난민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전선 지지자는 80% 정도가 이민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했는데 설문대상자 평균 30%에 비해 명백히 높은 수치이며, 83%로 나타난 테러리즘문제와 동등하게 심각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민자 통합문제도 55%가 주요문제로 지적해 전체 응답자의 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Mayer 2016, 55; 윤석준 2015, 93).

따라서 국민전선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반이민 운동을 지속해야했고, 테러와 난민 등으로 인한 반무슬림 정서와 이민통제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을 활용함으로써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진시켜왔다. 여기에 더해 지지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극우정당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반이민 운동만 실행하는 ‘단일이슈정당’이 아닌 반유럽연합과 경제사회문제 등을 반이민 이슈와 결합시켜 확장하는 정당으로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탈바꿈은 마린 르펜이 당 대표로 전면에서 나서면서 본격화되었다.

## 2. 국민전선의 전략변화: ‘탈악마화’ 전략과 반이민 운동의 확장

마린 르펜은 2011년 1월 국민전선의 대표로 선출되었다.<sup>23)</sup> 마린 르펜은 아버지 장 마리 르펜과 달리 국민전선의 전략을 수정해 극우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변화는 ‘탈악마화’ 전략에 의해 시작되었다. 국민전선은 프랑스정치에서 장 마리 르펜의 극우적 발언 등으로 인해 악마 또는 악동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비시정부와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아버지 르펜의 언행 등은 결선투표에서 악마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좌우정당 간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국민전선이 주요 정치세력의 공적이 되는데 기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린 르펜은 악마 이미지를 탈피해 정상적인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마린 르펜은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발언들을 삼가고 대중과의 교감을 강화하면서 대중적인

23) 국민전선의 경우 극우정당의 보수적 젠더(gender)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가계 전통’(family tradition)에 기초해 당의 설립자인 장 마리 르펜에서 딸인 마린 르펜과 마린 르펜의 조카인 마리옹 르펜(Marion Maréchal Le pen)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었다. 이것은 극우정당 내 세대 규범과 문화적 편견의 전달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Vieten and Poynting 2016, 536).

정치지도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탈악마화’전략 시행으로 인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아버지 르펜과의 정치적 결별과 극우주의자 배제였다. 국민전선의 정체성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된 불화 끝에 마린 르펜은 장 마리 르펜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사소한 것으로 언급한 아버지 르펜의 망언을 비판했으며, 이후 2015년 아버지 르펜에 대한 출당조치를 감행했다. 당시 국민전선 지지자의 58%가 출당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국민전선은 아버지 르펜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sup>24)</sup> 또한 2011년에는 나치를 찬양하고 노르웨이 테러사건을 옹호했던 당원들을 출당 조치했다(윤석준 2015, 79; 조홍식 2015 106-107; 오창룡 외 2016, 316).

국민전선은 인종주의, 파시즘, 민주주의부정 등의 악마적 이미지를 탈피해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목표로 내세워 왔다. 국민전선은 인종주의를 버리고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되어 제3공화국에서 확립된 공화주의의 전통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라이시테’개념을 활용해 반이민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홍태영 2017, 8-9, 28). 2012년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마린 르펜은 “라이시테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며, 이후 국민전선의 담론들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아버지 르펜이 종교에서 정당성을 찾으면서 ‘라이시테’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것과 달리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라이시테’를 당의 주요가치로 위치시켰다. 다만 2004년 ‘종교상징물 착용금지법’에 반대했던 것처럼 가톨릭문화를 배격하는 극단적인 ‘라이시테’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11년 “프랑스가 ‘라이시테’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톨릭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가톨릭과 ‘라이시테’를 결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주장에서 잘 드러났다<sup>25)</sup>(오창룡 외 2016, 317, 320).

마린 르펜은 반이민 운동과 연술을 지속했으며, 이러한 언행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마린 르펜은 2011년 자스민 혁명<sup>26)</sup>의 여파로 아프리카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24) 국민전선은 2017년 대선 홍보물에서 마린 르펜 대신 마린만을 사용해 아버지 르펜의 극우적 이미지를 배제함으로써 선거에서 지지 확대를 모색했다(경향신문 17/04/12). 아버지 르펜 또한 딸 마린 르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2017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5월 6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린 르펜이 한 국가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손녀인 마리옹 르펜이 정치 리더에 걸맞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17/05/08).

25) 르펜의 ‘탈악마화’전략은 기존 국민전선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핵심그룹인 공무원, 여성, 가톨릭 교계로까지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한국일보 17/04/30). 그럼에도 가톨릭 신자가 많은 브라타뉴와 방데 등의 서부지역에서 국민전선의 지지는 낮은 상황이다. 반면 여성, 기술자, 사무직 종사자 등 과거 국민전선에 무관심했던 계층에서 국민전선의 지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실뵁 크레퐁 외 2016, 153-154).

26)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시리아 내전은 대규모 난민 발생을 초래했고, 유럽연합 회원국 난민 신청자 수는 내전이 격화된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2013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난민 신청자 수가 301,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570,080명, 2015년에는 1,046,599명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최진우 2016, 113).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 정책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스페인 및 이탈리아와 협조해 난민과 이민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반이민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조홍식 2012, 412-413) 2012년 발간된 저서 〈프랑스가 살기 위해서〉에서 마린 르펜은 이민으로 인해 외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프랑스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화한 공장이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기업의 외국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등에 있어 동일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기하며, 프랑스는 이민유입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에릭 뒤팽 2016, 137-138).

또한 2015년 대규모 집회에서 마린 르펜은 “이민자 유입은 4세기의 야만인 침입과 같이 될 것이며 결과도 같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유럽에서 반이민자 수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민자가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유럽에서 반이민 주창자들은 야만인인 이민자와 테러를 연계시키는 언술을 활용하고 있다(Nail 2016, 164-165). 2016년 12월에는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절감된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등이 불법이민자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하층민과 저소득노동자들의 지지확보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연결되었다(한상원 2016, 248-249).

국민전선은 반이민 제기를 지속하면서 이민문제와 경제, 유럽연합, 엘리트의 기득권 등의 문제를 결합해 반이민 이슈의 확장을 추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반이민에 경제문제, 반세계화, 반엘리트 담론 등을 결합해 지지층 확대를 모색했다. 이민문제와 함께 경제이슈도 제기하면서 선거의제의 다양화를 시도했으며, 이민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와 유럽연합 탈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르코지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한 엘리트의 이익추구를 비판하면서 반기득권 언술 또한 제시했다. 그동안 부각시켜왔던 이민이슈와 함께 유로탈퇴라는 경제적 이슈의 제기와 개혁세력으로서의 국민전선과 기득권 정치세력인 기존 주류정당 간의 경쟁 프레임을 설정해 반엘리트와 반기득권 정당임을 밝히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국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집권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변화를 적극 추진한 것이다(조홍식 2015, 107-108).

한편 국민전선은 유럽 극우정당들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기존 극우정당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이자 유럽차원의 극우정당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먼저 네덜란드의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과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2013년 11월 마린 르펜과 네덜란드 자유당의 당대표인 헤이르트 빌더스(Geert Wilders)가 만나 2014년 유럽의회선거 연대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sup>27)</sup> 극우정당의 주요 강령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의 내용으로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낸 것은 커다란 변화로 인식되었다. 영국독립당과도 연대를 추진했으나 영국독립당은 2014년 4월 공식적으로 연대 거부를 표명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오정은 2014, 12-13).

이러한 국민전선의 전략변화와 함께 마린 르펜의 리더십 또한 국민전선의 이미지 쇄신을 기여했다. 당 내에서는 아버지 르펜과 결별을 택할 정도로 당 쇄신을 위해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열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버지 르펜과 달리 마린 르펜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에 더해 대중 친화적 발언과 행동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했다. 선거에서도 국민전선은 마린 르펜을 브랜드화해 적극 활용했다.

### 3. 대통령선거 및 하원의원선거: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과 한계

마린 르펜은 2017년 2월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반이민, 반세계화, 반이슬람 근본주의를 천명했다. 금융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세계화가 되어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들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고 이슬람 급진주의와 연계된 모스크는 폐쇄하겠다는 반이민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민자를 80% 줄여 연간 1만 명 정도로 제한하고 불법이민자에게는 기본의료보장의 제공을 중단하고, 무상교육제도도 프랑스국민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프랑스국적을 박탈한 뒤 추방하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경향신문 17/02/06; 조선일보 17/02/07).

대통령선거 1차 투표를 앞둔 2017년 4월 유세에서는 “다문화주의는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소프트 웨폰’(soft weapon)”이라고 다문화주의를 비판했으며, 무슬림여성의 복장규정 등을 예로 들면서 이슬람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다. 또한 “여기는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프랑스의 국가정체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집권 시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쟁점조약에서 탈퇴를 추진할 것과 국경통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반이민 이슈의 제기는 경쟁자인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후보와 반유럽연합을 천명한 멜랑송 후보 등과 마린 르펜을 차별화하기 위한 의도로 더욱 강조되었다. 실제 마린 르펜은 대통령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전술적 차원에서 유로존 탈피와

---

27) 국민전선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 후 네덜란드의 자유당과 벨기에 플레미쉬 이익당(Vlaams Belang) 등과 함께 유럽자유연대(European Alliance for Freedom)그룹을 결성해 극우정치그룹을 형성하려고 했으나 참여부족으로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치그룹 지위획득은 7개국 이상 참가와 25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정치그룹에는 국회의회의 원내교섭단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전혜원 2014, 57-58).

같은 주제에서 탈피해 반이민과 프랑스 정체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전선 지지자를 결속시키고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뉴시스 17/04/11; 연합뉴스 17/04/19; Financial Times 17/04/18).

마린 르펜은 2017년 4월 23일 진행된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21.3%의 지지를 확보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201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17.9%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던 것에 비해 득표율이 증가했다. 5월 7일 마크롱과 경쟁한 결선투표에서 마린 르펜은 33.9%의 득표율에 1100만 표를 얻었다. 2002년 장 마리 르펜이 결선투표에서 17.8%를 기록한 것에 비해 득표율이 대폭 상승했다. 2002년 장 마리 르펜이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때 '공화국 전통'에 따라 극우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 우파후보인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에게 투표하자는 주장이 노동절 집회 등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동의는 82.2%라는 시라크의 결선투표 압승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노동절 집회에서는 극우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한 '공화국 전선'의 구축 주장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결선투표에서 마린 르펜을 지지한 유권자의 특징은 저학력, 저소득층, 지방거주자 등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높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프랑스 북동부와 남동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연합뉴스 17/05/08; 한국일보 17/05/08; 중앙일보 17/05/08).

한편 2017년 6월 18일 진행된 하원의원선거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의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연합이 577석 중 61%에 해당하는 350석을 차지했으며 득표율은 43%에 달했다. 총선 전 양당은 의석이 한 석도 없었다.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연합은 44석으로 줄어들어 몰락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고, 중도우파연합은 131석을 얻는데 그쳤다. 멜랑송이 이끄는 프랑스 앵수미즈의 17석을 포함한 급진좌파연합은 27석을 얻었다.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42.6%에 그쳤다. 2012년 총선의 투표율이 55.4%였던 것에 비해 12.8% 감소했다. 앙마르슈의 승리는 기존 주류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마크롱의 실용주의노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현역의원 교체율이 74.8%에 달할 정도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이 분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반면 결선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82%까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에 비해 앙마르슈의 의석이 61%에 머문 것은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며, 특히 투표율이 낮은 것은 마크롱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조선일보 17/06/20; 중앙일보 17/06/20; 동아일보 17/06/20).

총선 결과 국민전선은 마크롱정부에 대항하는 제1야당을 희망했지만 577석 의석 중 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득표율에 비해 총선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국민전선의 현실적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15석이 필요한데 이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최대 50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이다.<sup>28)</sup> 반면 마린 르펜은 프랑스 북부 광산지역인 Hénin-Beaumont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마린 르펜으로서는 아버지 르펜과 조카 마리옹 르펜이 하원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이 첫 번째 하원의원 당선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전선은 2석에서 8석으로 의석수를 늘렸다.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내세운 국민전선의 패배는 국민전선이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포퓰리즘의 흐름을 활용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Washington Post 17/06/20; Telegraph 17/06/19). 한편 하원의원선거 이후 장 마리 르펜은 마린 르펜이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아버지 르펜은 대통령선거와 하원의원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상황에서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olitico 17/06/20).

국민전선의 총선 결과를 단순히 패배로만 간주하고 국민전선의 반이민 정치동원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 분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상보다는 적은 의석수이지만 국민전선은 의석수를 2석에서 8석으로 늘렸고, 당대표인 마린 르펜이 원내에 진출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마린 르펜이 대선 결선투표 33.9%를 득표하면서 이미 프랑스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원내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마린 르펜과 국민전선에게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위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낮은 투표율과 신생정당 앙마르슈의 돌풍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프랑스국민의 반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전선이 보다 많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프랑스국민에게 각인된 극우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V.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미래

### 1.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침체의 기회구조

#### 1)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적 구조: 선거제도와 영연방제도

영국과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 정당들이 정당명부제에 의해 선거가 진행되는 유럽의회선거<sup>29)</sup>에서 득표율과

28) 총선 1차 투표 직전 여론조사기관인 Ipsos와 르몽드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전선은 8석에서 18석 사이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중앙일보 17/06/11).

29) 유럽의회선거는 '이순위 선거'(second-order election)의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것이 낮은 투표율이다. 또한 '이순위 선거'는 특정이슈에 대한 지지나 반대에 의한 투표보다는 대통령선거나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국내 총선에서 득표 대비 의석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국독립당은 2015년 총선에서 득표와 의석수의 불비례를 경험했고, 국민전선은 2010년대 치러진 총선과 지방의회선거 등에서 모두 불비례에 따른 결과를 얻어야 했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선거들에서 이러한 불일치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대 정당은 2015년 하원의원선거에서 67.2%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 점유율은 86.5%에 달했다. 반면 영국독립당의 경우 12.6%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는 1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스코틀랜드국민당의 경우 스코틀랜드지역에서 50%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은 95%를 차지하는 왜곡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비례는 특히 2015년 총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에서 현재 선거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2011년 국민투표로 현행 선거제도유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고상두 외 2016, 90-92).

프랑스 선거제도는 층위별로 다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하원의회선거는 1차 투표에서 50%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있으며,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가 결합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국민전선은 광역선거구 정당명부제로 진행되는 유럽의회선거에서는 득표율에 근접한 의석을 확보해왔던 반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도와 결선투표제도로 실시되는 하원의회선거에서는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를 가져왔다. 유일하게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던 1986년 하원의회선거에서는 577석 중 3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정당명부제는 국민전선의 유럽의회 또는 국내하원 진출을 위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해온 반면 결선투표제도는 이를 제한하는 '제약요인'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결선투표제도에서는 국민전선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좌파와 우파 정당의 연합이 이루지는 반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으로서는 연합정치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결선투표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얻어왔다(윤석준 2015, 79-82).

결선투표제도는 2015년 12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전선의 발목을 잡았다. 12월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국민전선은 광역자치단체(region) 13곳 중 6곳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국적 득표율도 28%로 정당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2차 투표 결과 13곳 중 1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 국민전선후보의 당선을 막기

---

하원의원선거와 같은 '일순위 선거'의 이슈나 여당이나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항의투표의 성격을 갖는다. 영국의 경우 2009년 34.7%, 2014년 35.6%의 낮은 유럽의회선거 투표율을 기록했고, 프랑스의 경우도 각각 40.6%, 42.4%의 투표율에 그쳤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 43.0%와 42.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전혜원 2014, 39; 41).

위해 좌우정당 관계없이 2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행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마린 르펜 자신도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피카르드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결선투표에서는 45.2% 득표율로 우파 후보에게 패했다(조선일보 15/12/08; 한겨레신문 15/12/14).

결선투표제도가 국민전선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의원과 자치단체장 배출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2위로 결선투표까지 진출해 경쟁구도가 뚜렷한 대결구도 속에서 인지도 확대와 지지층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선투표제도가 국민전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만은 아니다. 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를 가진 영국과 달리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프랑스에서 대통령선거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도는 사표방지심리에 따라 주류정당후보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단순다수제도와 달리 1차투표에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전선과 같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점도 있다. 결선투표에서 패배했지만 마린 르펜의 대중적 인지도 상승은 차기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한편 선거제도 이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영연방제도는 영국독립당이 총선에서의 의석확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지역에 기반을 둔 스코틀랜드국민당, 북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신페인당(Sinn Féin)과 민주통합당(DUP) 등의 지역정당들은 총선에서 해당지역에서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결국 영국독립당은 잉글랜드지역에서 거대정당인 보수당 및 노동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당도 과거 스코틀랜드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스코틀랜드국민당에게 의석을 거의 빼앗긴 상황이다. 이러한 연방제도 아래에서 영국독립당의 원내진출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방제도는 영국독립당이 인종주의정당이 되지 않도록 막고 기존 영국민족당과 같은 인종주의정당을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기능도 해왔다.<sup>30)</sup> 인종주의에 기초한 영국민족주의의 제기는 잉글랜드정체성 강화로 비추어져 영연방의 해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국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정치에서 인종주의정당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0) 영국민족당은 2010년 339명의 후보가 선거에 입했던 것에 비해 2015년 총선에서는 8명의 후보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만큼 정치세력으로서 위상이 현저히 쇠퇴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수도 2013년 4,220명에서 2015년 5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총선에서는 득표도 1,667표에 그쳐 2010년 563,743표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Independent 15/04/14; Independent 15/05/08).



## 2) 영국과 프랑스 주류정당의 대응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구도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 등 제3당이 등장함으로써 양당구도가 흔들리고 연정형태의 집권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선거에서 양당의 득표와 의석확보는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양당 간 경쟁을 위해 기존 지지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확보를 위해 정책의 다양화와 소수정당의 선거의제를 흡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에서 자신들의 기존 지지층을 영국독립당에게 잠식당한 것으로 판단해 2017년 총선에서는 영국독립당 선거의제의 흡수와 지지층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sup>31)</sup>

영국의 주류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영국독립당의 의제를 잠식하면서 이러한 여파로 영국독립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보수당정부는 '하드 브렉시트' 표명을 통해 반유럽연합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영국독립당의 입지를 위축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노동당도 영국독립당의 포퓰리즘에 동원되었던 저소득층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치로 긴축정책 중단과 사회안전망 회복을 총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한겨레신문 17/06/15).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탈퇴결론으로 인해 당의 존립목표가 사라진 영국독립당이 하원의원선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제는 반이민 이슈였다.<sup>32)</sup> 그러나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이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당의 경우 일부 노동자 계층의 영국독립당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선거운동에서 강력하게 제시했다.<sup>33)</sup> 이러한

---

31) 기존 영국의 정당체제는 재분배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진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가 지속되어왔고, 경제적 책무(stewardship)와 공공서비스관리가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경제보다 문화라는 새로운 균열을 드러냈으며 심화시켰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문화적 전통주의와 다문화주의 등의 차이들이 오래된 분열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정당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Ford and Goodwin 2017, 28-29). 보수당과 노동당은 영국정체성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민통제에 관한 정책제시로 영국독립당의 의제를 흡수해왔다. 양당 모두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영국가치의 수용과 이민통제강화, 유럽연합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 정책의 변화 등을 제기했다.

32) 영국독립당에 대한 영국국민의 인식은 2014년 9월 시행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주요이슈별 최적의 정책을 보유한 정당에 대한 조사에서 영국독립당은 이민과 유럽문제에 관한 최적의 정책을 가진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두 개의 이슈에서 기존 주류정당과 비슷하거나 약간 우위를 가진 정당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실업 등의 문제에서는 주류정당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한 영국독립당의 정책이 영국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상두 외 2016, 87-88).

33) 노동당에서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포함한 기존 노동당 지지층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레어집권

양당의 노력을 통해 결국 2015년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2017년 총선에서는 대거 이탈해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독립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반이민 이슈를 강화하면 인종주의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것은 영국민족당과 같이 정치적 소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존 방안으로 유럽 극우정당과 같이 반세계화, 반엘리트, 반기득권 등의 포퓰리스트 의제를 제기하면서 틈새정당(niche party)으로서 존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수당과 노동당 내 정치세력교체가 진행되면서 포퓰리스트 의제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양당의 지지확보 노력이 강력하게 진행되었고, 이들의 지지 또한 다시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전선의 반이민 운동에 대한 대응은 우파정당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특히 사르코지가 내무부장관과 대통령으로 재직할 기간에 이민통제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국민의 이민문제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지 않았고, 특히 사회당 집권 시기 발생한 테러는 이민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 정치세력의 무기력함을 드러낸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존 주류정당이 이민과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반이민과 함께 반엘리트, 반기득권을 내세운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주류정당의 기존 지지층의 회귀와 지지층 확장을 위한 노력이 성공적이었던 반면, 프랑스 주류정당은 실패했고 2017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의 몰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전선에게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고 정치적 부상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 우파와 좌파정당의 정책을 혼용한 마크롱과 앙마르슈라는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의 등장에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이민의 구호가 지지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주류정당과 정치엘리트의 몰락 속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엘리트와 정당은 국민전선의 반엘리트와 반기득권 주장을 희석시켜 버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이후 국민전선은 선거에서 '프렉시트'(Frexit)를 주장했으나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두 축을 유지해온 프랑스국민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졌고, 브렉시트를 유럽연합의 위기로 인식한 유권자들은 친유럽연합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한 마크롱에게 지지를 보냈으며 대통령 당선과 총선 압승으로 연결되었다.

기존 주류정당의 국민전선에 대한 대응은 의제흡수나 기존 지지층 복귀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몰락 속에서도 결선투표에서 '공화국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좌우의 '공화국 전선'전략에 따라 제3후보인 마크롱이 대통령에

---

시기 시작된 당의 친이민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2014년 6월 1일 7명의 노동당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내용을 정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Kaufmann 2014, 248).

당선될 수 있었다. 국민전선의 경우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인해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총선의 경우 역대 총선 중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전선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은 의석확보에 실패한 요인이다. 결국 마크롱과 앙마르슈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완화하고 이민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민전선의 정치적 위상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2.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재부상의 기회구조와 전략

### 1) 반이민 운동 강화와 확장 가능성

앞서 제시된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국민 모두 이민문제를 중요한 정치이슈로 인식하고 있다.<sup>34)</sup> 또한 최근 난민과 테러 발생 등으로 인해 유럽차원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다.<sup>35)</sup> 영국은 브렉시트로 결론이 난 상황이고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강화의 입장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다시 힘을 얻었다. 이런 상황에 기초해보면 양국에서 반유럽연합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유럽연합 이슈와 함께 부가되었던 이민문제는 아직도 양국에서 진행형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테러와 비호신청자의 급증은 이민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초가 되고 있다.

영국은 테러 이외에도 브렉시트 협상이 이민문제의 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공동시장접근과 자유로운 이동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과 논의를 시작해야

34) 2015년 9월 영국에서 실시된 Ipsos MOR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자 중 56%가 이민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했으며, 경제문제보다 30%정도 많을 정도로 이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Ipsos MORI의 2016년 4월 설문조사에서는 47%가 영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민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이민이슈가 선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Goodwin 2015, 15; 세계일보 16/06/26). 같은 기관의 2015년 여론조사에 비해 주요이슈로 이민문제를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른 이슈에 비해 이민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35) 2015년 실시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에 대한 조사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난민문제를 포함한 이민문제와 이민과 관련된 테러문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37%로 나타나 2007년 52%에 비해 많이 낮아졌으며,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2007년 69%에서 2015년 53%로 대폭 감소했다. 2015년 유럽인의 유럽연합과 유럽통합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 측면이 증가한 것은 난민이슈 등의 이민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최진우 2016, 118-119).

한다. 결국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민문제는 국내외적 주요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영국독립당이 반이민 정서를 동원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몰락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관건적 요소이지만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민이슈를 보수당과 노동당이 수용해 정책화한 상황이고 반이민이 인종주의로 흐르게 될 경우 더 이상 정치적 회복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36)</sup> 총선 이후 영국독립당 내부에서 반이슬람 메시지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은 영국국민의 인종주의에 대한 반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독립당은 인종주의로 경도되지 않으면서 반이민 문제를 제기하고, 주류정당과 이민이슈를 두고 경쟁해야하는 난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민전선은 지속적으로 이민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반이민 정서는 국민전선에 의해 정치적 동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달리 기존 좌우 주류정당이 이민문제에 관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몰락한 상태에서 마크롱정부에게는 이민과 이민자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크롱정부는 친유럽연합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이동 정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난민과 테러문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이민 등의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 국민전선의 반이민 주장은 여전히 프랑스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전선의 반이민 운동은 지속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2) 전략변화와 정치연합의 가능성

영국독립당은 생존을 위한 전략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당의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탈이 제기한 ‘브렉시트의 파수꾼’ 역할로는 선거에서 정당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반이민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와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인종주의 정서가 강한 영국사회에서 인종주의정당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반이민 운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하며, 기존 주류정당 이민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이다. 총선이후 당내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반무슬림 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또는 유럽 극우정당처럼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36)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으로 간주되는 반인종주의 정서는 1970년대 이후 영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7%의 영국국민만이 영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백인의 피부색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만이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Goodhart 2014, 257).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당과 정치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에서는 당내 정치엘리트 교체와 정책변화로 반엘리트와 반기득권 불만을 완화한 측면이 있어 영국독립당의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동당의 경우 코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그룹이 개혁정책을 제시하면서 이탈했던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다시 확보함으로써 영국독립당의 포퓰리스트적 정치동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독립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영국민족당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치세력으로 생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영국독립당에게는 리더십문제의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패라지를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장기간 유지되어 오면서, 그의 권위적 당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당내 내홍으로 이어졌다. 당 내분과 당대표 경선을 둘러싼 갈등은 의원들의 탈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패라지가 다시 복귀해야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중 인종주의를 암시하는 언행과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는 등의 행태는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패라지가 당대표로 복귀해 당 내분을 해결하더라도 영국국민이 단기간에 패라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 탈퇴운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류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이 패라지를 포함한 영국독립당과의 연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연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전선의 경우 전략변화로 정치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략변화도 이번 총선 결과에서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변화를 통해 많이 탈색되었지만 아직도 프랑스국민은 국민전선에 대해 극우정당 또는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에만 집중하는 ‘단일이슈정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국민전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 목표의 수정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반유럽연합 운동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된 프랑스국민의 정서를 반영해 반이민 운동과 달리 반유럽연합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전선의 전략변화가 검토되어야 한다.<sup>37)</sup> 즉 유로존 탈퇴와 ‘프렉시트’ 주장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유럽연합의 개혁을 주장할 것인지 등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민전선에서 제기해온 반엘리트와 반기득권 구호를 집권당인 앙마르슈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전선이 주장해온

---

37)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전선은 이른바 ‘프렉시트’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을 겪었다. 당내에서는 유로존(eurozone)을 떠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선거패배 이후 당의 변화를 위해 동성결혼과 경제적 자유주의, ‘프렉시트’ 등의 이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대선 후 당대표에 복귀한 마린 르펜은 유럽연합 탈퇴와 프랑(franc)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내 인사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렉시트’ 주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Independent 17/05/12; Independent 17/05/22).

반엘리트와 반기득권 의제가 호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전선으로서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전선의 지지층 확대는 기존 우파와 좌파정당 지지층을 잠식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의 지지상승이 국민전선 득표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의 마린 르펜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후보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전 3월 실시된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4세 응답자 중 마린 르펜 지지가 39%, 마크롱은 21%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2008년 18%에서 2017년 25%로 증가했으며, 특히 저학력 농촌지역 청년층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4월에 같은 기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5-34세 응답자 중 28%가 마린 르펜을 지지했으며, 마크롱 23%, 멜랑송 2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7/03/20; 경향신문 17/04/19; 한국일보 17/04/20).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전선으로서는 청년층의 지지와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마크롱정부와 신생정당 앙마르슈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청년과 주류정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은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이 큰 계층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인 마크롱정부와 앙마르슈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전선으로서는 이들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신생정당으로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국민전선은 다시 한번 정치적 침체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사회의 반이민 정서로 비추어보면 국민전선의 정치적 동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크롱정부가 이민문제 해결에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반이민 정서는 확대될 수 있고, 국민전선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반이민을 넘어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될 경우 '공화국 전선'의 형성으로 인해 현재 선거결과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선투표제도의 벽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연합이 모색될 수 있다.<sup>38)</sup> 국민전선의 정치연합 우선대상은 우파정당들이 될 수 있다. 과거 우파정당

---

38) 국민전선 지지자에게서 선거연합에 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전선 지지자의 75%가 전국단위선거에서, 73%가 지역단위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과의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중운동연합 지지자는 37%가 전국단위선거에서, 40%가 지역단위선거에서 국민전선과의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여론조사에서도 극우파 지지자의 대다수와 중도우파 지지층의 과반수 정도가 양 정당의 선거연합을 선호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실제 양 정당 간의 선거연합 시도를 두고는 대중운동연합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2015년 2월 두(Doubs)지역 보궐선거 1차투표 결과 사회당과 국민전선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자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대통령은 사회당후보의 승리를 지지하지는 않았고, 같은 당 쥐페(Alain Juppé)총리는 공화주의 연합의 전통에 따라 사회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윤석준 2015, 84; 조홍식 2015, 113-114).

내에서 국민전선과의 선거연합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우파 정치인들 대부분은 국민전선과의 연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좌우정당의 합인인 '공화국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신생중도정당인 앙마르슈의 등장으로 인해 우파정당의 국민전선과의 정치연합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마크롱정부와 앙마르슈는 기존 좌우정당의 정책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와 좌파정당의 선거연합 우선대상으로 국민전선이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전선에서 마린 르펜의 리더십은 강화될 것이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해 원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득표율 상승과 의석수를 늘리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중적 정치인으로 인지도를 높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40대 후반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나치협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처럼 나치에 대한 인식문제와 반이민과 민족주의 또는 인종주의 경계에서의 언술 등이 극우 정치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극우 이미지의 제거가 마린 르펜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

## VI. 결론

반이민 정치집단인 영국독립당과 프랑스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에는 이민문제라는 새로운 균열구조의 형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0년대 유럽연합 출신 이민자문제, 난민문제, 무슬림에 의한 테러 등은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독립당은 과거 정치적 입지가 미미했던 것에 비해 2014년 유럽의회선거와 2015년 총선에서 대폭 증가한 득표를 얻어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전선의 경우 2000년대 침체를 벗어나 2010년대 선거에서 정치적 부상이 지속되었다. 국민전선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당 선거역사상 최다득표를 얻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기존 2명에서 원내에 8명이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7년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은 정치적 몰락을 경험해야 했으며, 국민전선도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득표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총선에서 받아야 했다.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민문제라는 균열구조와 함께 이들 정당들의 극우정당과의 차별화와 이민문제의 다른 이슈와의 연계 등의 전략변화가 정치적 부상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즉 이민문제라는 균열구조의 부각 없이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상은 어렵고, 이민문제가 해결되거나 부차시되는 경우 반이민 정당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민이슈에만 국한된 ‘단일이슈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변화가 수반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정치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민문제가 형성한 균열의 기회구조와 전략변화라는 행위자의 노력이 영국독립당과 국민전선의 정치적 부상을 가져왔던 요인이 되었다.

한편 양 정당의 정치적 성장을 어렵게 하고 침체 또는 몰락의 길을 걷게 하는 제도적 구조는 양국의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도와 결선투표제도는 정치연합의 가능성이 낮은 양 정당이 득표에 비해 적은 의석수를 얻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반이민 이슈를 흡수하는 주류정당의 대응은 반이민 정당에게는 틈새정당으로서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민문제에 대한 보수당과 노동당의 대응은 영국독립당의 몰락을 가져왔고, 국민전선의 경우 신생정당 앙마르슈의 이민정책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부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들 양당의 정치적 부상의 계속 또는 재부상은 이민문제라는 균열구조의 지속과 확장, 당의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전략변화와 정치연합의 달성 등의 요인에 의해 가능하다. 반면에 선거제도와 주류정당의 대응은 양당을 정치적 침체 또는 몰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구조로 역할을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경우 영국독립당과 달리 국민전선은 최근 마크롱정부가 제기한 비례대표제도 도입검토가 시행으로 연결된다면 원내진입 확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전략변화라는 분석틀을 통해 반이민 정당의 정치적 부침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국면과 단기적 양상의 정치적 성장과 쇠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 장기간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비교적 단기간 내 전개되는 반이민 정당의 부상과 침체를 고찰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류정당의 대응과 반이민 정당의 전략변화를 다룸으로써 행위자로서 정당의 역할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객관적 요인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한편 논문에서 활용된 ‘정치적 기회구조’와 전략변화 분석을 유럽의 반이민 정당 또는 극우정당에 대한 고찰로 확대시켜 정치적 부침에 관한 설명과 예측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부침의 유형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상두 · 기주옥. 2013.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7(1), 185-203.
- 고상두 · 장선화 · 한예슬. 2016.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적 성장과 한계. 비교민주주의 연구 12(1), 67-100.
- 김수행. 2006. 영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37-88.
- 김승민. 2013. 프랑스의 이슬람포비아 확산 원인. 세계지역연구논총 31(3), 195-223.
- 박기성. 2016. 균열구조의 변화와 극우정당의 성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73-194.
- 박단. 2016.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통합유럽연구 7(1), 1-29.
- 실빙 크레퐁 · 조엘 공병. 2016. 신화를 만든 극우 국민전선의 약진. 세루주 알리미 외. 극우의 새로운 얼굴들, 152-159.
- 엄한진. 2015. 동질화에 대한 반발로서의 극단주의 현상. 경제와 사회 107, 107-139.
- 에릭 뒤팽. 2016. 극우파 마린 르펜의 화려한 ‘변신’. 세루주 알리미 외. 극우의 새로운 얼굴들, 135-143.
- 오정은. 2014. 유럽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2014-07, 1-20.
- 오정은. 2015.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HOMO MIGRANS 13, 60-82.
- 오창룡 · 이재승. 2016. 프랑스 국민전선의 라이시테(laïcité) 이념 수용. 유럽연구 34(1), 309-331.
- 윤석준. 2015.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요인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33(4), 71-102.
- 전해원. 2014. 2014년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함의. 의정연구 20(3), 37-65.
- 조의행. 2016. ‘남겨진 자(Left Behind)’ 들이 이끈 브렉시트(Brexit). 현상과 인식 39(3), 41-67.
- 조홍식. 2012. 프랑스 정치의 유럽화. 국제정치논총 52(3), 403-424.
- 조홍식. 2015. 2010년대 프랑스 민족전선의 성장과 재도약. EU연구 40, 101-122.
- 최진우. 2012.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2(1), 31-62.
- 최진우. 2016.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1), 109-137.
- 한상원. 2016. 억압된 것의 회귀: 브렉시트, 트럼프 그리고 증오의 포퓰리즘. 진보평론

- 70, 242-265.
- 홍태영. 2017.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다문화사회연구* 10(1), 5-34.
  - 황기식 · 석민선. 2016. EU의 이민자 사회통합 위기와 통합정책적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9(4), 135-167.
  
  - Allen, Trevor. 2017. All in the party family? Comparing far right voters in Western and Post-Communist Europe. *Party Politics* 23(3), 274-285.
  - Cushion, Stephen, Richard Thomas and Oliver Ellis. 2015. Interpreting UKIP's 'Earthquake' in British Politics. *The Political Quarterly* 86(2), 314-322.
  - Eatwell, Roger. 2000. Ethnocentric Party Mobilization in Europe: the Importance of the Three-Dimensional Approach. Ruud Koopmans and Paul Statham, eds.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348-367.
  - Ewen, Neil. 2016. The age of Nigel: Farage, the media, and Brexit.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86-87.
  - Ford, Robert and Matthew J. Goodwin. 2016. Different Class? UKIP's Social Base and Political Impact. *Parliamentary Affairs* 69, 480-491.
  - Ford, Robert and Matthew J. Goodwin. 2017. A NATION DIVIDED. *Journal of Democracy* 28(1), 17-30.
  - Geddes, Andrew. 2014. The EU, UKIP and the Politics of Immigration in Britain. *The Political Quarterly* 85(3), 289-295.
  - Geddes, Andrew. 2016. The referendum and Britain's broken immigration politics.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18.
  - Givens, Terri E. 2005. *Voting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hart, David. 2014. Racism: Less is More. *The Political Quarterly* 85(3), 251-258.
  - Goodwin, Matthew. 2015. UKIP, the 2015 General Election and Britain's EU Referendum. *Political Insight* December, 13-15.

- Jackson, Daniel,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2016. Introduction: the Brexit campaign.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8-9.
- Jennings, Will, Gerry Stoker and Joe Twyman. 2016. The Dimensions and Impact of Political Discontent in Britain. *Parliamentary Affairs* 69, 876-900.
- Kaufmann, Eric. 2014. The Politics of Immigration: UKIP and Beyond. *The Political Quarterly* 85(3), 247-250.
- Koopmans, Ruud and Paul Statham. 2000.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as a Field of Political Contention: An Opportunity Structure Approach. Ruud Koopmans and Paul Statham, eds.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3-56.
- Lendaro, Annalisa. 2016. A 'European Migrant Crisis'? Some Thoughts on Mediterranean Borders.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16(1), 148-157.
- Martin, James. 2016. Rhetoric of excess.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21.
- Mayer, Nonna. 2016. Immigrants and politics in France. *민족연구* 68, 44-61.
- Moore, Kerry. 2016. Wales, immigration, news media and Brexit.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28.
- Morrison, James. 2016. Break-point for Brexit? How UKIP's image of 'hate' set race discourse reeling back decades. Daniel Jackson, Einar Thorsen and Dominic Wring, eds. *EU Referendum Analysis 2016: Media, Voters and the Campaign*. The Centr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Culture and Community Bournemouth University, 66-67.
- Nail, Thomas. 2016. A Tale of Two Crises: Migration and Terrorism after the Paris Attacks.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16(1), 158-167.
- Smith, Melanie and Chloe Colliver. 2016. The impact of Brexit on far-right groups in the UK.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Research Briefing, 1-8.
- Tournier-Sol, Karine. 2015. Reworking the Eurosceptic and Conservative Traditions

- into a Populist Narrativ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3(1), 140-156.
- Vieten, Ulrike M. and Scott Poynting. 2016. Contemporary Far-Right Racist Populism in Europe.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7(6), 533-540.
  - 영국독립당 2017년 총선 공약자료집. 출처: <http://www.ukip.org.manifesto2017> (검색일: 2017. 6. 22).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뉴스1
  - 뉴시스
  - 동아일보
  - 세계일보
  - 시사IN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
  - 한국일보
  - Economist
  - Financial Times
  - Guardian
  - Independent
  - Politico
  - Telegraph
  - Washington Post

● 투고일: 2017. 07. 14. ● 심사일: 2017. 07. 21. ● 게재확정일: 2017. 08. 15.

## **Study on Anti Immigration Political Group in Europe : Political Rise and Fall of UKIP and National Front as Anti Immigration Parties**

Kim Yongcha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litical rise and fall of UKIP in Britain and National Front in France as anti immigration parties. In the 2010s, both parties experienced electoral successes, especially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n 2014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in France. There are many analyses about the parties' political development. First, immigration and refugee issue have influenced their political rise. Second the electoral successes of the parties were based on the supports from 'left behind' people including the aged, the low educated and the unskilled workers. However, the UKIP was defeated in the 2017 gener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 Even if the National Front won 8 seats in the 2017 general election, the result was below expectations.

This research presents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rise and fall of the UKIP and National Front in the 2010s through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pproach and the examination of the parties' strategy for winning elections. The cleavage structure of immigration and the efforts to change strategies resulted in the political upsurge of the UKIP and National Front. However, electoral systems such as the first past the post and the single member dual ballot, the action of mainstream parties against the UKIP and National Front and low probability of political alliance caused political collapse or delay of persistent growth of both parties.

〈Key words〉 Anti Immigration, Political party, UKIP, National Front, Europe